

## 서 평

< 표준 영어 발음 > 이 현복 편역: 106면, 과학사, 1980.

{원저 JOHN TRIM, *English Pronunciation Illustrated*.  
Pp.96,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조 명 례

영국의 저명한 음성학자인 John Trim 교수가 최근에 *English Pronunciation Illustrated* 을 펴냈다. 한국인의 영어 학습/교육자를 위하여 이 현복 교수가 이 저서를 우리말로 옮길 곳은 옮기고, 또 해설을 붙여서 "표준 영어 발음" 의 서명아래 과학사에서 출간하였다. 이 저서의 특징 및 사용 방식 등은 이 교수가 소상하게 잘 서술해 주고 있는바, 이 교수가 주장하듯이 이 저서를 이용하는 방법 즉 그림(개념 전달), 철자(글자 표기), 발음 표기(음성 전달)의 삼위 일체를 통한 영어 발음 학습/교육 방법은 현실의 한국 영어 학습/교육에 매우 긴요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언어의 일차적 기능은 입으로 소리를 내며 귀로 듣는 소리말을 통한 상호 의사 전달이다. 따라서 영어교육도 마땅히 소리말 위주로 행하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눈으로 보고 쓰는 글자 중심의 글말교육에 치중하다보니 우리의 어학 학도들을 국제적인 영어리요, 귀머거리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비능률적 영어교육 방식은 막대한 국력의 낭비이므로, 이를 시급히 시정해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이 저서가 지니는 시대적 유용도는 크다고 하겠다. 이런 긴요한 자료가 담긴 저서를 우리말로 옮겨, 우리에게 이용케한 이교수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고자 한다.

이 저서는 얼핏보면 아주 초보적인 내용의 영어 발음 연습 자료로 여겨지나,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이를 십분 선용하려면 많은 음성학 및 음운론의 지식이 있거나 지식을 갖춘 능력있는 교사의 도움과 설명

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저서의 발음 자료는 현대 표준 영국 발음 위주임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 영어 발음과는 상치되는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미국식/영국식 영어 발음을 두고 어떤 발음을 학습/교육시킬 것인가 또는 그 유용도를 논할 경우, 설왕 설래가 많으나 아불튼 전통적인 영국영어 발음을 주로 의하고자 하는 본에게는 본 저서부터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세계 공통어로서의 영어를 습득하려면 A.C. Gimson 교수의 다음 주장에 유의하는 양식을 지녀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The learner (of English) should be allowed to concentrate on one form until some certainty of performance has been achieved, Only then should he be exposed to other varieties of wide currency - particularly the two main national forms, but other types (such as Australian or South African) introduced where appropriate - and with receptive rather than productive competence as the aim.<sup>1)</sup>

이 책에 수록된 표준 영어 발음 자료의 제시 순서는 아래와 같다. 단 순 모음 12개, 이중 모음 8개, 삼중 모음<sup>2)</sup> 2개를 수록한 모음 부분과 자음 22개와 반자음 /j, w/ 의 순서로 자음 분야에 이어, 낱말의 경계 (Word divisions) 의 차례로 서술한 후에 첫소리/끝소리의 색인 및 최소 대립어를 한데 모은 낱말 색인으로 끝맺고 있다.

한 음소를 한 페이지에 서술한 원칙을 지키되 최소 대립어를 이용하여 서로 대립되어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음소(예를 들면 i:/ɪ)의 차이를 중요하게 취급하는 의도인지 19쌍으로 묶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한 페이지씩 더 할애하고 있다. 유별난 점은 영어의 [+cons, +voc] 특성을 지닌 음소인 /r, l/ - 한국인에게 구분하기 어려운 음소들 - 을 각각 2 페이지씩 총당한 사실이다. 이는 아마 이들 음소가 지닌 특성의 다양성에 기인한 탓일 것이다.

발음 훈련 자료는 중요한 음소를 중심으로 배열하되, 언제나 구체적인 명사어로 시작하여 명사구를 거쳐 문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명사어와 형용사 및 선행 명사로 수식된 명사구에서의 발음 표기는 간혹 기본적 강형음 (sounds in strong forms) 으로 되기도 하지만 명사절과 문장내에서의 발음 표기는 일상 회화형의 약형음으로 되어 있

고, 각 면마다 발음의 연결 훈련에 필요한 자료가 풍부하다. 우선 홀로 쉽게 발음될 수 있는 핵심구와 그 뒤에 다른 구절을 차례로 첨가하여 완전한 문장을 이루도록 꾸며져 있다. 특히 영어 특유의 리듬을 습득케 할 의도로 강세 표시가 되어 있고 문장이나 긴 구절은 세로줄로 구분지어져 있다. 본 서에서 영어의 말소리를 여타 위치, 다양한 연결 관계에서 식별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선정한 점은 우리나라 현행 영어 교육 현상에 비쳐 깊이 흥미하여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D. Bolinger 교수의 아래 서술에 유의하기 바란다:

" The common-sense view is that language is a collection of words. The educated common-sense view is that it also contains rules for putting words together - a dictionary lists the words, a grammar states the rules. The impression comes from our formal schooling which emphasizes 'letters'- it is so important to learn to read and write that listening to a live voice in a live setting hardly seems a proper way to study language. But building a description by starting with words and grammar is moving in the wrong direction, from inside out; for true understanding one must go from the outside in."<sup>3</sup>)

이제는 본 서를 통독한 후 서평자가 파악한 내용을 두고 논평을 할 단계가 온 것 같다. 이는 오로지 이 저서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건설적 논평임을 전제하여 두어야 하겠고, 간혹 천박한 서평자의 오류 및 편견에 의한 착오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책의 사용 방법의 서술중 10면에 "가령 25면을 보면 'a witch', 'a wicked witch', 'Which is a wicked witch?', 'Which of the women is a wicked witch?',..... 가 나와 있는데 ...." 로 서술되어 있는데 실제로 본 서 25면에는 그런 예문은 찾아볼 수 없다. 또 101면의 7행에 /l/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끝소리 썩인인 점에서 이런 /l/ 은 어두운 [ɫ] 인 점을 설명해야 하겠다. 105면의 최소 대립어에서 s/z 의 예인 use(noun), use(verb) 에는 noun 과 verb 의 구분이 있는데도 θ/ð 의 예인 mouth, mouth 에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음을 이상하다.

영어의 문법적 기능어인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관사, 대명사나 be 및 소유를 표현하는 have 동사에 약음형을 사용하고 강세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본서의 원칙인 듯하다. 물론 대립되거나 특히 강조를 표시하는 특수한 여건하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have/has 동사중 소유의 일반 동사는 모두 hæv (80면)/hæz (28, 29, 50 등)로 강세없이 강음형이나 완료형을 구성하는 조동사로서의 hæz는 강세를 수반하지 않고서 /hæz/ (43, 78, 81 면 등)와 /əz/ (51 등)의 양형으로 표기되므로 /hæz/와 /əz/는 상호 교체형인 듯하다. 45면에서

She would like to dine ... /ʃɪd 'laɪk tə 'daɪn.../으로 표기되어 있어 would 가 철자와는 무관하게 약음형으로 발음되어 생동감을 준 좋은 예이다. some 이 30, 39, 55, 74, 80 등에선 /səm/으로, 79면에선 제 2 강세를 수반하고 모음 음가가 다른 /,səm/으로 표기되는데 의미의 차이로 강/약음형이 사용됨을 교사가 설명해야 하겠다. 조동사는 긍정표현에선 강세 표시가 없는 데(예를 들면 91면의 /wɪl 'nevə,wɛə/, 93면 /kəd ,kəm/과 /kəd 'kəm/<sup>4</sup>), 부정표현에선 제 1 강세 표시이다(예, 90면의 /'wəʊnt 'wɒs/, 32면 /'ka:nt 'pa:k/, 30면 /'dʌznt 'lʌv/ 등). 부정의 "조동사 × 본동사"의 동사구에서 본동사의 강세 표기가 전자 3개는 제 2 강세인 반면 후자 4개의 경우는 강세가 제 1 강세이어서 주 4)의 지적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처럼 화자의 음성 표현은 주관성이 너무 많이 개재된 탓으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한편 음성 표기의 원칙이 없음을 나타내는 반증이 아닐까?

"a × 명사<sub>1</sub> × 명사<sub>2</sub>"의 명사구에서 각 명사의 표기가 27면의 /'tredʒə ,tʃɛst/ 처럼 선행명사는 제 1 강세로 중심명사는 제 2 강세로 표기되어 어떤 원칙이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62면에서는 a straw hat /'strɔ: 'hæt/ 형과 a tea tray /'ti: ,treɪ/ 형이 동사에 혼란 하게 되니 초보자에게 혼란이 오지 않을까? "동사 × particle" 동사구의 경우 49면 등의 /,wɔ:ks 'ɔf/ 과 69면 등의 /'faɪt 'ɒf/ 을 비교하면 동사의 강세 표기가 다르다.

Particle 인 off 의 음성 표기는 94면의 낱말쇄인과 61면의 /'blu: 'ʌp/ 의 표기와 견주어 봐도 49면의 음성 표기가 착오인 듯 하다. 81면의 예문중 a brand-new pound-note의 음성 표기인 /ə 'bræn'nju: 'paund'nəʊt/ 은 형용사와 명사의 음성 환경이 같지 마는 전자에서만 /d/ 음이 탈락되어 있다. 차라리 양자 모두 /d/ 음을 탈락시키거나 보전시키는 표기가 타당할 것 같다.

음성표기의 인쇄 오류를 지적하면 29면의 /ɒn ɪz ,hed/ 가 /ɒn ɪz 'hed/ 로, 끝행 /'kæp/와 /ɪn ɪz 'hænd/ 사이에 세로줄을 쳐야하며, a glove 의 /ʌ 'glʌv/ 는 /ə 'glʌv/ 로, 49면의 off 는 /'ɔf/가 아니고 /ɒf/로, 51면의 /'wɪd ə'grauz/ 는 /wɪð ə 'grauz/로, 59면의 /'prɪtɪ pɒli/는 /'prɪtɪ 'pɒli/ 로 70면의 /'vɪvɪ'en/의 표기는 /vɪvɪ'en/ 으로, 74면의 아래서 7행과 10행에서 grass|seed 의 세로줄을 없애고, 81면의 /..... ɪz 'nevju: 'naɪdzl.../ 에서 /'naɪdzl/을/'naɪdzl/로, 84면 아래 예문의 /'laɪbrəri/ 는 /'laɪbrəri/로, 89면 끝행의 /'mju:zɪ-'kæli.../는 /'mju:zɪkæli.../로, 80면의 /....əm 'mɛəri/는 /....əm 'mɛəri/ 로, 93면의 Joan... /'dʒəʊn/ 는 /'dʒəʊn/으로, 76면의 This asiatic has,.. 에서의 asiatic 는 Asiatic 으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서평자의 이런 지적은 편역자인 이 교수가 원저자인 Trim 교수와 협의하게 할 의도에서 이며 본 서가 개정될때 이런 모순과 오류가 수정될수 있도록 함이 본 서를 이용하는 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발음 표기의 인쇄가 얼마나 어려운가의 반증이 되기는 하나, 정확한 발음 연습을 위해서는 사소한 오류라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서가 지닌 또 다른 장점은 음성 표기법이 현실 음가에 충실한 사실이다. 음성의 연결 훈련을 중시한 랫으로 대화 음성의 동화 현상을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가령 37면의 Maud is short 에서 is 의 기본 음가는 /ɪz/ 인데도 후속하는 /s/ 음으로 동화되어 /ɪz/ 로 표기한 점이나, six sheep 가 /'sɪks 'fi:p/가 아니라

/'sɪkʃ 'ʃi:p/로 표기한 점, 80면의 예문중 sandwiches의 음성 표기가 /d/음의 어중간 탈락이 흔하므로 /'sæmwɪdʒɪz/로, .... and Mary가 /..... m'mæɪrɪ/로 표기된 점, 접속사 and가 흔히 약음형인데 후속음의 영향으로 음성표기가 26, 28, 51면에서는 /ænd/로, 26, 40, 86면에서는 /ən/으로, 80면에서는 /əm/으로, 64, 86면 등에서는 /ən/으로, 71면 /'θɪri:|'hʌndrəd|n 'θə:tɪ|'θri:/와 86면 /'lædz n 'læsɪz/에선 and가 /n/로 표기될 정도이다. 또한 37면 끝행인 not at all의 음성표기가 /nɒt ət 'ɔ:l/이 아니라 /nɒt ə 'tɔ:l/로 된 점은 실제 음성에 충실한 좋은 표기 예라고 하겠다.

이 책의 내용이 시각적으로 호소력이 있고 재치있는 유모아가 품기는 예문으로 표현된 장점외에도, 영어 발음을 배우는 외국인들을 주 대상으로 삼아서 펴낸 책이므로 영어를 처음부터 배우는 이는 물론, 중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표준 영어 발음을 배우거나 가르칠 분에게 매우 귀중한 고본임을 확신하며, 이 책이 널리 보급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 &lt; 주 &gt;

- 1) Gimson, A.C. *Towards an International Pronunciation of English*. In Strevens(ed.) *IN HONOUR OF A.S. HORNBY*, Oxford, 1978. Pp.45-53.
- 2) /eɪə/, /əʊə/, /ɔɪə/등의 삼중모음을 인정치 않고 /aɪə/와 /aʊə/만을 기록한 이유는 아마 /a/와 /i/ 및 /ə/간의 중가모음의 거리가 먼 탓일 것 같다. S. Potter의 다음 서술을 참조하기 바란다. "The five triphthongs /eɪə, əʊə, aɪə, aʊə, ɔɪə/ as in *player, rower, fire, hour, employer* are of rare frequency, and are of considerable instability, and therefore we have not given them phonemic status." Potter, S. *Changing English*. André Deutch, 1975, P. 19.
- 3) Bolinger, D. *Language-The Loaded Weapon*, Longman, 1980, P.11.
- 4) 91면에 ...men could come 이 /men kəd ,kəm/과 /men kəd 'kəm/로 표기되어 있는데 men에 강세표시가 없는 것과, come의 강세가 전자는 제2강세로, 후자는 제1강세로 표시된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